

작품 내용

제 목	크레파스 향기와 단톡방의 문장들
내 용	매일 아침 챗바퀴 돌듯 반복되는 고3의 일상 속에서, 나는 가끔 책상 옆 벽에 붙여둔 그림 한 장을 보곤 한다. 초등학교 시절, 가족들과 함께 떠났던 여행지의 풍경을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이다. 어릴 때 나는 여행을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하기도 했고, 사진 찍는 것도 무척 좋아해서 여행 가방을 쌀 때면 언제나 나만의 필수품 삼총사를 챙기곤 했다. 바로 조그만 사진기와 스케치북, 그리고 알록달록한 크레파스였다. 탁 트인 바다나 노을이 예쁘게 지는 길을 마주하면 그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기로 찰칵 찍어두고, 동시에 내 손으로 직접 도화지에 담아내고 싶다는 알 수 없는 열정이 샘솟던 시절이었다. 내게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세상을 가장 깊게 기억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 마음에 드는 풍경을 발견하면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기 셔터를 눌렀다. 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고민하고, 가장 예쁜 구도를 잡기 위해 쪼그려 앉아 초점을 맞추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현실의 여행 시간은 어린 나의 조급한 손놀림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해는 너무 빨리 졌고, 다음 일정을 재촉하는 부모님의 목소리에 늘 스케치북을 서둘러 덮어야 했다. 아쉬운 마음에 나는 내가 찍은 사진들을 사진기 화면으로 다시 확인하곤 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의 흔들리는 무릎 위에서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다. 덜컥거리는 진동 때문에 선이 빠져나가고 크레파스 가루가 손에 묻어 그림이 조금이라도 뭉개질까 봐 조마조마하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면 그날 밤 조용한 숙소의 침대 머리맡 스탠드 불빛 아래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사진 속 풍경을 종이 위에 옮겨 적듯 그리곤 했다. 손가락에 크레파스의 진득한 냄새가 배고 눈이 피로해졌지만, 하얀 종이를 나만의 시선과 색채로 마침내 채워 넣었을 때의 밀려오던 뿌듯함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었다.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한 기다림, 그림 한 점을 완성하기 위한 끈기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의 묵직한 가치를 어렵פות이 배웠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고, 특히 입시의 최전선에 선 고3이 된 지금의 나는 어느새 그 소중한 감각을 완전히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 사실 우리 나이대의 학생 공부법이나 일상을 보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뻑뻑한 학원 스케줄과 숨 막히는 모의고사 점수... 게다가 쏟아지는 수행평가 폭탄 속에서 무언가를 순수하게 창작하고 기록할 여유 따위는 사치에 가까웠다. 매일이 마감 직전의 전쟁 같았다. 그러다 보니 내 손가락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는 편리한 세상 속에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효율성만을 쫓아 움직였다. 발표 자료에 넣을 예쁜 폰트와 캐릭터 일러스트를 구글에서 검색해 몇 초 만에 다운로드하고, 수행평가 피피티 배경으로 쓸 멋진 사진들을 출처도 모른 채 복사해 붙여넣었다. SNS를 하다가 마음에 드는 글귀나 잘 찍은 감성 사진이 있으면 별 생각 없이 캡처해서 내 계정에 업로드하곤 했다. 아마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들도 비슷할 것이다. "출처만 남기면 되겠지", "상업적으로 쓰는 것

도 아닌데 어때?", "다들 이렇게 하잖아"라며 스스로를 합리화를 하였다. 클릭 몇 번으로 남의 창작물을 너무나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이 다 보니, '남의 소중한 재산을 가져다 쓴다'는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경각심은 나도 모르게 완전히 무뎌져 있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수행평가가 가혹하게 겹쳐 밤을 지새우던 날이 있었다. 인터넷에서 대충 짜깁기한 글이 아니라,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돌려도 걸리지 않을 진짜 내 생각과 논리로 가득 찬 긴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 수행평가였다. 단어 하나를 고르는 일부러 슬라이드에 들어갈 자료를 직접 구성하는 과정까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다. 자정이 훌쩍 지난 시간, 붙여진 눈으로 모니터의 하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그때 힘들어서 '좀만 정신 차리고 하자'라는 생각을 하며, 일어나는 순간, 벽에 있는 그림을 보았다. 이 그림은 초등학교 시절 내가, 문득 어릴 적 흔들리는 차 안에서 사진기를 보며 크레파스를 쥐고 찢찢매던 내 모습이 보였다. 온전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완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잡아먹는 일인지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과제를 겨우 제출하고 며칠 뒤, 나는 우연히 반 친구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을 확인하다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경험을 했다. 누군가 "애들아 이 자료 퀄리티 대박임, 참고해봐"라며 올린 파일 속에, 내가 며칠 동안 눈물겹게 밤을 새우며 고민 끝에 적어 내려갔던 문장들과 어렵게 구도를 잡아 직접 찍어 넣었던 사진들이 출처도 없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던 것이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묘한 불쾌감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 친구는 그저 자료가 좋아서 가볍게 공유했을 뿐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영혼과 시간을 잡아먹으며 만든 창작물이 아무런 이름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인터넷에 떠돌던 정체불명의 공공재처럼 소비되는 모습은 생각보다 큰 상처가 되었다. 내가 셔터를 누르고 밤을 새우며 고뇌했던 시간이 통째로 무시당하고 지워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음의 망치가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 내가 그동안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바다에서 무심코 '복사하고 붙여넣기' 했던 수많은 글과 사진, 그림들 뒤에는, 내가 이번 과제를 하며 느꼈던 지독한 고뇌와 밤샘의 고통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을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말이다. 셔터 한 번을 누르기 위해 계절을 기다렸을 사진가의 인내, 문장 하나를 빚어내기 위해 밤을 지새웠을 작가의 고독이 그 모든 콘텐츠에 담겨 있었다. 저작권이라는 단어는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 교과서에서나 외우던 딱딱하고 엄숙한 법률 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내가 숙소의 스탠드 불빛 아래서 눈을 비벼가며 그림을 완성했던 것처럼, 한 창작자가 쏟아부은 시간의 무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땀방울을 최소한으로 존중해 달라는 사회적 약속이자 인간 대 인간의 예의였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손쉽게 글을 대신 써주고, 클릭 몇 번이면 지구 반

대편의 예술가가 만든 작품을 내 것처럼 복제할 수 있는 고도의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편리해질수록,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 고뇌하고 셔터를 눌렀을 '진짜 인간'의 노력에 더 주목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권을 지켜주는 일은 거창한 법적 지식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과제를 할 때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남기는 것, 예쁜 이미지나 폰트를 사용할 때 상업적/비상업적 범위를 한 번 더 꼼꼼히 읽어보는 것, 그리고 타인의 창작물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일상 속 실천에서 시작된다.

책상 앞 유리창에 붙은 어릴 적 나의 수채화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 사진기 렌즈를 들여다보던 설렘과 덜컥거리는 길 위에서도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놓지 않았던 그때의 순수한 열정을 기억하며, 이제는 마우스를 움직이기 전에 잠시 손가락을 멈추어 본다. 화면 건너편에서 밤을 지새웠을 또 다른 창작자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그 가치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입시 공부보다 먼저 내가 배워야 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고등학생의 가장 솔직하고 올바른 품격이 아닐까 생각한다.